

활력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22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2月 25日(水曜日) [1]

1·3종어항 2010년까지 46곳 신규지정 종합개발키로 확정

해양수산부 올해 20곳 지정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0년 까지 전국 46개 항을 신규 지정어항으로 개발, 현재 89개인 제1·3종 어항을 1백3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어항법시행규칙을 개정, 어항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연차별로 제1·3종 46개 어항을 추가 지정하고 권역별 종합기능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어항을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양륙기능에서 수산물 유통·교통·관광·문화·복지 해양레포츠 등의 다양한 종합기능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의 중심핵이 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항포구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 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지정기준의 재정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키 위해

지난 9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농경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항을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의 양륙기능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물 유통·교통·관광·문화·복지 해양레포츠 등의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고 어항 이용체계를 권역별로 기초기능, 지역중심, 종합기능어항으로 구분하여 어촌과 연계개발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행 어항지정 기준이 단순한 수산업 중심으로 어항간의 거리, 어선 척수 및 톤수, 어획량 등 현재의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이 필요한 항포구의 어항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 미래의 잠재력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항지정 기준을 이용어선 척수, 톤수 등 필수적인 수산업적 요소와 해상교통, 물류유통, 관광, 생활거점 기능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합기능 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어항 항포구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어항개발 수요는 현재 89개인 1·3종 어항을 2010년까지는 1백35개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올해 20개항, 2000년 15개항, 2002년 11개항 등 46개항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1·3종 20개 어항을 신규지정할 계획이며, 개발용역 사업에 이어 오는 2001년부터 신규지정 어항에 대한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2면, 제1·3종어항 지정계획 표 참조)

올해 일본 어항예산 수산업예산의 62.5%

일본은 최근 재정구조개혁법에 의한 최초의 예산편성으로 정부예산안을 결정했

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지난해보다 0.4% 증액된 77조6천6백92억엔이다.

이 가운데 수산업예산은 3천4백57억7천6백만엔이며, 어항관련예산은 2천1백60억1천1백만엔으로 수산업예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4면, 1998년도 일본 어항 관련사업예산 총괄표 참조)

第3代 海洋水産部長官에 金善吉 의원



정부는 3월3일 제3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선길 의원(34년생, 자유민주연합·충주)을 임명했다.

■ 신임 김선길 장관 약력
△56년, 서울대 정치학과 3년 재학중 미국유학 △57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59년,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62

년,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 △62-67년, 미국 텍사스 웨스리안대학교·웨스턴센터 키대학교 교수 △69-70년, 서울대행정대학원 및 연세대정법대학 초빙강사 △71-73년,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73-75년,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기획관리실장 △75-80년, 상공부 국제협력·경공업·상역차관보 △80-81년, 상공부 차관 △81-84년, 중소기업은행장 △85-88년, 대한증권협회 회장 △88-90년, 민정당 충주·충원 지구당위원장 △93-96년,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이사장 △96.5월-현, 제15대 국회의원 △97.3월-현, 자유민주연합 충북도지부위원장, 당무위원.

전국 410개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

2007년까지 2.1조원투입 국토균형발전 촉진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향후 10년동안 총 2조1천억원이 투입돼 인천지역 35개 섬을 포함한 전국 4백10개 섬에 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백억원과 지방비 1백32억원 등 총 4백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10년간 급수, 전기, 도로 등 1천3백86건의 생활기반시설사업에 총 7천4백72억원을 투입하고 어항, 농수산물가공시설 등 1천9백91건의 생산기반시설사업에 모두 1조2천1백5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도, 복지회관 등 7백30건의 환경복지시설에 1천3백7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사업의 목적이 도서주민의 정주 기반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특산물과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면서 올해부터 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목항 관광어항으로 해양문화관 등 유치

강원도 강릉시 소재 안목항이 관광어항으로 개발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제1종어항인 안목항을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존속시키면서 이 일대의 개발가능 부지 약 16만㎡를 관광어항으로 개발, 경포도립공원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강릉시는 관광항 개발을 위한 시설로 1백2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해양문화관, 해양과학박물관, 야외공연장, 야외조각전시장 등 운동 교양시설과 요트클럽하우스 유람선터미널 낚시배선착장 등 마리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월 25일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수많은 난제를 안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대량실업과 고물가가 예상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총체적으로 왜곡된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 이후 취임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곳곳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 한편으로 마음 든든한 바 없지 않다.

어쩌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인기없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새 정부에 우선 격려를 보낸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국정지표는 ①국민적 화합정치 ②민주적 경제발전 ③자율적 시민사회 ④포괄적 안보체제 ⑤창의적 문화국가 등 다섯가지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의 비전이 될 1백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인 셈이다.

국정과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의 위기 극복이다. 그래서 경제안정과 재도약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다. 경제안정을 위해 나라 밖으로부터 돈과 투자를 많이 들여오고, 나라 안으로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건설하 하도록 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 속에는 '수산업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추진으로 합리적인 어족자원 확보 △해양목장 사업을 활성화, 신기술을 이용한 어업환경 육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총 허용어획량 제도 도입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통한 관광 휴양형 어항어촌 건설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돈쓰는 것보다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농어촌 부문에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경제계획이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에 있었다면 이번 국정과제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농어촌에 무분별하게 쏟아붓던 각종 정부돈의 솜씨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절약하고, 축소하여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니다.

많은 어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어항산업이란 것이 1-2년 쉬고, 또 1-2년 계속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오늘날까지 어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수산대국이 되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투입해야 될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미루는 것이 당장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항협회가 발족 이후 마치 숨어있는 진주를 캐듯, 한 목소리로 어항개발을 외쳐온 결과 지난 10 여년간 과거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어항투자가 이루어져 이제 어항산업에 싹이 돋고 꽃망울을 만들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것이다. 이런 점을 간파하고 어항개발을 늦추거나 게을리 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개발자금이 헛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시 섬에서 태어나 어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터라 큰 기대가 되지만, 실무차원에서 이런 단순한 기대 이상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을 크나큰 기대와 함께 거듭 축하해 마지 않는다.

새 정부에 바란다

동 정

어항청소선 선장회의 주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의 농정 과제 및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4일에는 어항청소선 선장회의를 주재, 5일에는 한국행정학회조직학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정부조직,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19일에는 고려대연세대학교원 조찬세미나에 참석, 20일에는 한반도 조찬간담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2월11일 농·축협중앙회장 등과 비상경제대책위 전체회의에 참석,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협의, 13일에는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거행,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2월16, 17 양일간 군산, 보령지구를 순시, 검사현장을 둘러보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출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2월10일 건설공제조합 이사회에 참석, 2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KBS·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경제특별강연회에 참석, 6일에는 광주

민속박물관 이사회에 참석, 13일에는 4H후원회 98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이어 한국 케이블TV 광주방송 제15차 이사회에 참석, 이어 광주국악진흥회 97년도 법인결산 총회에 참석, 16일에는 제49회 세계인권선언 기념 글짓기대회 시상식에 참석, 19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 20일에는 광주 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11일 광주과학기술원 김호근 2대원장 취임식에 참석, 13일에는 신문협회 제36차 정기총회에 참석, 14

일에는 광주 송원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 25일에는 제15대 대통령취임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세미나에 참석, 5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세미나에 참석, 6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전경련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 참석, 13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20일에는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정기세미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6일 장성 삼계지구 공사현장에 출장, 9일에는 나주 영산교 시설공사 현

장을 방문, 16일에는 전남 양촌제 농업용수 시설공사 현장에 출장, 1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간사회의에 참석, 이어 전남도 체육회 98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건설공제조합 자문회의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지역 대학생토론회를 개최, 17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및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1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간사회의에 참석, 2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총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6일 광주전남 경우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18일에는 진도공사 현장을 방문, 1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간사회의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6일 제주컨벤션센터 4차 이사회에 참

석, 17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3차 운영회의에 참석, 19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회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제주국제협의회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2월27일 국민생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2월8일 여수공사 현장에 출장,

회장 선임

▲이환범 사장(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12일 한국건설컨설팅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당 선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박정용 조합장 ▲강화" 박용열 조합장 ▲남해군" 이수삼 조합장 ▲기장군" 김종학 조합장 ▲굴양식" 최근욱 조합장 ▲1·2잠수기" 서수영 조합장 ▲해남" 박한진 조합장 ▲하동" 강순석 조합장 ▲진도" 허중무 조합장 ▲거제" 정상욱 조합장 ▲대항기선저인망" 이수인 조합장 ▲고흥군" 정병남 조합장 ▲경주시" 임동철 조합장 ▲부산시" 임상봉 조합장 ▲장흥군" 김대중 조합장 ▲근해통발" 서원열 조합장 ▲의창군" 김하룡 조합장 ▲통영" 정재균 조합장 ▲고성" 이대현 조합장 ▲울산" 오성웅 조합장 ▲속초시" 김용화 조합장 ▲동해시" 김봉수 조합장 ▲포항시" 김승웅

조합장
주소 변경
▲이수연씨(주식회사 LG텔레콤 상무이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101-801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342) 719-3000.

의원 가입

▲전충남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의 축

▲김만수씨(한국어항협회 근무)의 3남 경룡 군이 오는 3월21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저동 소재 영락교회 성교관에서 화축을 밝힌다.

의 비 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 조남욱)
▲동화건설주식회사 (사장 김재우)
▲삼척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동훈)
■개인
▲임종국씨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 사장)
▲김희천씨 (전 수산청 과장)
▲박원길씨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문용근씨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전충남씨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 2월4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청소선 선장회의를 주재, 올해도 더욱 적극적인 어항청소선 관리 운영으로 어항 환경정화 운동에 솔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개 항만 물류센터건설 본격화

인천 동해 등 올해부터 기본실시설계

부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주요항만에 올부터 물류기지 건설사업이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 광양 군장 등 전국 11개 주요항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마무리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르면 연말부터 항별로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수산개발원이 인천 광양 부산 군장 등 4개항에 대해서만 물류센터개발의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나 한반도를 물류센터화 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

요항만 모두를 개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들 외에 울산을 비롯 동해 제주 등 7개항에도 물류센터를 추가 개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물류센터개발에 있어 배후지 조성은 정부가 맡고 집배송센터 등 유통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기로 했다. 부산항의 경우 용당컨테이너 야적장을 비롯 양산ICD 컨테이너조작장 등에 집배송센터와 창고, 도매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동북아 지역의 유통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인천항에는 경인운하 사토장 39만평과 북항매립지 18만평, 남항매립지 36만평 등에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별도 물류센터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광양항의 경우 배후지 2백만평에 대규모 창고와 집배송센터 도매시설 등을 갖춘 초대형 물류유센터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군장항을 비롯 동해 울산 제주 등 8개항에도 30만평 규모씩의 물류센터를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제1·3종어항 지정계획

구분	연차별 지정계획				지정대상어항		
	소계	98년	2000년	2002년	98년	2000년	2002년
합계	45	20	15	11	20	15	11
부산	1	-	1	-	-	칠암(1)	-
인천	2	1	-	1	선진포(1)	-	정포(1)
강원	4	2	-	2	공현진, 궁천(2)	-	동산, 교암(2)
충남	4	2	-	2	삼길포, 남양(2)	-	무창포, 삼시도(2)
전북	2	1	1	-	구시포(1)	상왕등도(1)	-
전남	16	6	6	4	회진, 여호, 우이도, 북항, 연도, 도창(6)	오천, 다물도, 창유, 손죽, 하태도, 이목(6)	울포, 만제도, 당인, 덕우(4)
경북	4	2	2	-	모로, 남양(2)	직산, 창포(2)	-
경남	9	5	3	1	원천, 호두, 대포, 유포, 동암(5)	남포, 진촌, 원촌(3)	장목(1)
제주	4	1	2	1	하효(1)	함덕, 세화(2)	신창(1)

항만운영시설 정밀 안전진단 9억원 투입 5월부터 시행키로

인천항, 울산항 등 6개 항만 운영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대형 항만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항, 울산항 등의 기존 부두시설과 인천항 갈문 등 운영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해당 지방청별로 이같은 점검계획을 시달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총 9억원의 용역비를 확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용역발주는 해당 지방청별 실시계획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올해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을 보면 인천항 5, 6부

두를 비롯 울산 6부두 및 석탄부두, 평택 LNG부두, 목포 석탄부두 등 4개 항만이 총 4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 갑문시설 등 2개 운영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등 2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3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시설에 이어 특별점검대상으로 포함되는 총 72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차액보증금 전액 반환

건설분야 애로해소방안 발표
정부는 기성률 50%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반환해 온 현금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해 주기로 했다. 또 1년동안 한시적으로 물가등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계약체결후 1백 20일 이후에서 60일 이후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분야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단기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현금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고 대신 보증서로 대체키로 했다.

기술경쟁방식으로 입찰 전환

건교부 98건설산업 제도개선 마련

건설교통부는 설계용역에 기술·가격 분리입찰제도를 시범실시하는 등 건설사업의 입찰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개별법마다 다원화돼 있는 감리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계획된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제도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기술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해 건설사업입찰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규제의 철폐,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주

기관 역량향상 등 5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안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격자 배출확대 및 질적향상,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육성관리, 기술인력 교육의 혁신, 건설인의 책임 의식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4대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저가공사 50% 이상 시공시 보증금 전액 반환

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건설업체가 현금차액보증금제도 폐지이전에 계약한 저가낙찰공사를 50% 이상 시공했을 경우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현금차액보증금 반환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차액보증금납부제가 폐지(95년 7월)되기 이전에 시공한 경우 지금까지는 시공비를 만큼만 현금으로 반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반환방법도 그동안 2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 받은 후 현금을 반환하던 것을 1배상당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예산배정지연 등으로 시공자 책임없이 공기가 늘어날 경우 실제시공은 50%가 안되더라도 예정공기의 50%를 경과하면 50%만큼 현금으로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있는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를 폐지, 이미 납부 받은 현금계약보증금은 현금차액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현금반환하고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같은 현금차액보증금 반환조건완

화 및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제폐지로 건설업체에 약 1천8백억원의 현금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한적최저낙찰제 대상공사를 올 12월부터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대상공사와 지명경쟁대상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만 1억원과 3억원이하로 각각 상

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따르도록 하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公共공사 사급자재 관급으로 전환 환율급등 감안 회계통첩개정 시행

환율급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유류 등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계약체결이 가능해지고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돼 가격변동이 클 경우에는 특약을 정해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회계통첩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최근의 환율급등 또는 은행의 신용장개설정지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공사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공사계약일반 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정부는 특히 환율상승으로 자재를 관급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전환해 주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돼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전환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한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하는 등락률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비교해 산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 일간의 시일이 장기화돼 노임이나 수입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특약을 정해 이를 물가변동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PQ·적격심사 대상공사 지분율 따라 가중평점

조달청은 우수건설업체를 육성키 위해 PQ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별 지분율

해외어항

피셔리나 어항플라자 시설로 살맛나는 미즈하시 어항

반디오징어 산지로 알려진 일본 토야마(富山) 만.

미즈하시(水橋) 지구는 정치망 위주의 연안 어업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토야마시 동쪽의 나메리카와(滑川) 시와 경계지역에 있다.

계획에는 어항 재정비 외에 피셔리나, 어항플라자(Plaza) 등이 포함되어 있고 토야마 시를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널리 열려진 활력있는 미즈하시 지구의 정비'를 계획의 기본 개념으로 하고, 정비의 기본방침 과제로는 ①고부가가치형 어업의 진흥 ②다기능형 어업의 정비 ③'살맛나는' 미즈하시 지구의 정비 ④'찾아와서 즐거운' 미즈하시 지구의 정비 등 4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수산가공업 진흥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하천(白岩川)과 어항을 분리 독립시켜서 어항기능을 강화, 꽃과 푸르름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체험학습이나 교류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

지구 내에는 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활기 넘치는 어업기지 지역', 양륙이나 프레저보트를 바라보면서 소풍할 수 있는 '활기찬 보트 지역', 어구 건조장을 겸하고 공원기능을 지니는 '교류 섬 지역', 특산물인 반디오징어의 가공이나 잡어가공 등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해산물 가공지역', 정치망과 프레저보트의 마찰을 피하고 피셔리나로서 지역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바다의 극장 지역', 역사나 바다를 배우고 정치망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학습지역' 등 이들 지역을 일부 겹치면서 그 지방의 요구와 방문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기능 어항지역을 형성한다.

피셔리나가 완성되면 현재의 어선 이외에 약 1백10척의 프레저보트 계류가 가능해진다. 또 수산관광센터나 해양센터는 피셔리나 하우스와 함께 어항플라자로 집약되어 하역장 저빙 냉동냉장 시설도 여기에 집중될 계획이다.

개개의 정비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친수방파제는 신체장애자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의 높이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있다. 산책로도 그린 프롬나드(green promnade)로 하고 주차장이나 조경시설도 하고 있다.

또한 학습시설도 충실하게 하여 전시실 외에도 도서관 비디오영화를 포함하여 정보기능을 지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운영은 제3섹터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미즈하시 어항의 양륙량은 1992년 기준 연간 6백톤, 어획고는 2억3천9백만 엔으로 어항기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을 감안 가중평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은 PQ 및 적격검사 때 공동수급체 구성업체의 지분율을 감안치 않고 평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분율이 30%이상인 업체의 평점은 1백% 인정되 30% 미만업체는 지분율의 2

배에 해당하는 평점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평점배점방식으로는 주간사업체의 평점이 낮아도 평점이 높은 업체가 낮은 지분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에 참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전문공종별 시공능력 평가

전문화 촉진차원 향후 확대적용

앞으로 토목사업 등 6개 전문건설업종은 1개씩의 전문공종 시공능력도 함께 공시된다.

전문공종별 시공능력은 전문분야로 신고한 공사실적의 최근 3년간 연평균액으로 하되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키 위해 전문공종별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는데 이어 6개 전문건설업종에 한해 1개씩 전문공종 시공능력을 평가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문공종 시공능력 평가액의 경우 전문공종으로 신고한 공사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액으로 하되 당해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시공능력은 22개 면허업종과 함께 이번에 추가된 6개 전문공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게 됐다.

건교부는 전문공종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받으자할 경우 실적신고때 해당 전문공종을 기재한 별도의 건설공사실적내역표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내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最新技術개발로 漁港漁村 발전에 寄與하겠습니다

ISO 9001 인증획득

주요사업종목

- ◇ 전문기술용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환경상하수도
- ◇ 설계감리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 ◇ 평가분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 토목시공감리 ◇ 측량
- ◇ 항만기술부설연구소

會 長	姜 信 雄	常務理事	孫 光 植	常務理事	呂 運 泰
副 會 長	閔 英 植	技術理事	宋 寅 哲	技術理事	宋 寅 錫
副 會 長	許 成 部	技術理事	吳 洪 均	技術理事	金 鍾 洙
代表理事	孫 一 洙	常務理事	梁 熙 範	部 長	安 重 善
副 社 長	朴 鎬 胤	技術理事	沈 相 權	技術理事	



株式會社 建一엔지니어링
KUNIL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